

월시사포커스

정치 · 경제 · 교육 · 문화 · 환경종합시사지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아산의 시민과 함께하는 아산의 일꾼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충청남도아산시의회 김학복 부의장

온천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한국의 온천은 수온이 25℃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한다. 온천은 대부분 비화산성으로 화강암류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에 50여 개의 온천이 분포하고 있다. 온천은 예로부터 질병 치료와 요양에 이용되었으나 근대교통이 발전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의 일본인에 의해 근대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곳의 온천이 분포되어 있는 아산시는 온천문화를 선도하는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중심의 의정활동과 민의에 적극 부응하는 성숙한 의회를 실현하고 지방자치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아산시의회 김학복 부의장을 만나보았다.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

21세기 지방자치는 시민 모두의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중심

의 생활자치가 기본이 되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시민 생활이 우선이 되는 정책개발과 행정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재선에도 변함없이 아산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학복 부의장은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 전반을 꾸려나가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난 의정활동에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적인 의회를 정립하고 선진의회로 정착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김학복 부의장은 말했다.

김학복 부의장은 의회에서 의장이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의장은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의 화합과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복 부의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김학복 부의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아산시와 지역주민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아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대 온천이 있다.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아산온천이 있는데 온양온천은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주변시설이 잘 발달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온천 지역 최대의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도고온천은 볼거리가 많은 온천휴양지이고 아산온천은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온천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온천은 이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집마다 보일러가 놓이고 지하수가 개발되어 집에서든 언제든 목욕이 가능한 현대의 시대에 발맞추어 온천의 문화도 변화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아산시가 관광지로서 온천에 대한 변화의 시기를 인식하고 서비스차원의 새로운 온천의 문화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김학복 부의장은 말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이 새겨져 있는 사적지이다. 김학복 부의장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현충사의 일부 부지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에 따라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되어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충무공 이순신을 추모하는 향불이 끊이지 않는 현충사는 참배의 개념도 있지만 볼거리와 먹거리 문화가 조성되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산시에 속해 있는 염치읍은 주민 다수가 쌀농사와 원예 등의 농업에 종사하여 주변에 평야 농지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염치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농·어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김학복 부의장은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과 급식비 등 불합리하게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아산시의회

제5대 아산시의회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성숙한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초석을 착실히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왔다. 의정활동에 있어 정례회와 임시회 등을 거쳐 신뢰받는 성숙한 의회로의 정착을 위해 힘쓰고 매월 둘째, 네째주 화요일에는 ‘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업무진행사항을 청취하고 사전 조율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사랑받는 의정, 생산적인 의정, 참여하는 의정 구현으로 23만 아산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김학복 부의장은 말했다.

주요 성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전철 역명을 ‘아산역’으로 확정되도록 했으며 낭비적인 해외연수를

개선코자 ‘아산시의회의원공무국의출장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생산적이고 알찬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다른 의원과 집행부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의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고 있다.

업무추진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주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정 질의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한 노력으로 아산시의회는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행복을 위한 첫발걸음, 아산신도시

신행정수도 이전, 고속전철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아산신도시는 풍요로운 관광자원과 산업이 발달한 자족도시로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산신도시는 교육타운, 첨단산업단지 도시, 역세권 중심의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산지역은 국내 최고의 교육도시로서 우수한 인재배출은 물론 국제 규모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 발전으로 산학협력의 자족도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과 문화,





레저생활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 가치가 더욱 남다른 아산은 첨단, 문화, 교육, 레저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신도시를 열어 갈 것입니다. 아산신도시는 교통도시로서 고속철도와 국철, 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교통체계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최고의 교통망을 갖추어 꿈같은 교통인프라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라고 김학복 부의장은 말했다.

대학과 첨단기술 산업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아산신도시는 산학협력의 자족도시로 더욱 발전하여 풍요로운 도시를 약속하고 있다. 아산신도시는 과학적인 도시 계획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편리한 생활이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로 수도권 기능을 흡수하여 산업 및 교육의 발전, 싱그러운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미래형 도시의 아산은 기대해 볼만하다.

세계 속의 녹색 첨단도시로 부상하는 아산시

한 가장으로써 식솔과 가정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듯이 아산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과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친 김학복 부의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아산시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더욱더 사명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김학복 부의장은 아산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아산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아산시가 주민들의 화합으로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삼봉산의 등산로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도 놓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서서 중추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아산시는 위대한 아산 시민의 저력이 있기에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아산 시민의 사랑과 열정 속에 보답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고무 포진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만 아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



는 한 사람으로써 아산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김학복 부의장은 말했다.

아산시에 많이 분포된 은행나무는 가을에 잎이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아산시 전체를 황금색으로 채색하여 장관을 이룬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멋진 장관을 이루는 은행나무는 아산시민의 끈기를 상징하고 있다. 또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먼저 화사한 붉은 꽃과 흰 꽃을 피우는 목련은 은혜의 꽃말을 의미하여 천혜의 온천수를 상징하고 있다. 은행나무와 목련이 있는 아산시는 희망과 활력이 넘쳐 난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집단 서식하며 아산시의 두터운 인심과 아산시민의 온순한 성격과 협동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유서 깊은 온천문화의 발상지로서 찬란한 향토 문화를 꽃피우고 충청인의 기상과 충효정신을 면면히 이어온 아산은 복된 삶의 터전이다.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일류도시로서의 꿈을 담은 비둘기가 아산시의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만 같다. 세계 속의 녹색첨단도시로 부상하는 아산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이정재기자

프로필

- 한남대학교 최고경영자 수료
- 선문대 최고지도자과정 수료
- 해병전우회 아산시 회장
- 온양라이온스클럽 36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아산시 체육회 부회장
- 자민련아산시 부위원장
- 한나라당 박근혜 특보
- 제4대 아산시의회 후보기 운영위원 간사
- 제5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수상

- 아산시민 대상(안보부문)
- 충남 모범인상 수상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공로회장